

전 부산 살다가 제 자식에게 더 좋을까 싶어 전남고흥 바닷가로 이사했습니다

작성자 haesamLee (@haesamLee) 작성일 2010-04-16 11:48:34 (KST)

글 ID 12260225321 유형 답글

X에 저장된 본문

@4autisticchild 전 부산 살다가 제 자식에게 더 좋을까 싶어 전남고흥 바닷가로 이사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때는 덜 힘들더군요.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 복이려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이 들더라고요^^

X 글 ID: 12260225321

X 아카이브 원문 보관 사본 · 250 / 593